서귀포 바다가 선물해준 제주 해녀의 몸짓을 품고

이연심 제주창작무 보유자
오랜 해녀춤 인생 바탕으로
창작무 과거·현재·미래 탐색
제자·해녀춤 수강생도 출연

창작무인 제주 해녀춤의 과거·현재를 탐색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무대를 펼치는 서귀포 무용인 이연심씨.

'솔동산'에서 태어난 그는 늘상 바다와 해녀를 보며 살았다. 푸른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고 소라를 잡고 미역을 따면서 해녀의 몸짓이 자연스레 그에게 스며들었다.

1950년대 말, 초등학교 학예회 때 해녀춤을 춘 건 우연이 아니다. 서귀포여고 재학 시절 부산에서 열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할 때도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해녀였다. 제주에 무용학과는 없었지만 고수선, 이상준, 송근우 선생을 스승으로 만나며 이론과 실기를 다져갔고 그같은 열정은 제주도 향토무형유산 제주창작무(좀녀춤·물허벅춤) 보유자로 이어졌다.

2017년 해녀춤·물허벅춤으로 '제주창작무 무보집'을 냈고 자신의 이름을 딴 제주민속춤보존회를 꾸려가고 있는 이연심씨. 그가 직접 안무하고 출연하는 '바다로 가는 해녀' 공연을 통해 해녀춤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낸다.

이달 26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해녀춤에 얽힌 이연심 회장의 어릴 적 사연으로 시작돼 제자들과 창작무인 해녀춤의 앞날을 제시하는 무대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 불턱놀이, 테왁춤, 지전춤 등 바다와 해녀의 민속에 기반한 연희도 행해진다.

이 회장은 "해녀문화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었다고 이 춤을 무작정 보존하고 보급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제주 원로무용인로서 아름다운 서귀포에서 나고 살며 해녀춤의 가치를 혼으로 느꼈었기에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춤의 나래를 펼칠 뿐"이라고 했다.

그와 더불어 김하월(무용) 윤보배(무용) 이향희(무용) 허은영(무용) 이순심(무용) 양희숙(무용) 강문희(민요) 고예나(서귀북초 4)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해녀춤을 배우고 있는 이들은 '동네 해녀들'로 출연한다. 문의 010-3697-0407. 진선희기자

가을을 그리는 교향악과 관악의 선율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서귀포관악단도 정기 공연
제주합창단은 기획 연주회

가을 교향악과 합창 무대가 잇따른다.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이 저마다 다른 빛깔로 가을을 그려낸다.

제주교향악단은 이달 25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14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정인혁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1880년 완성된 '스코틀랜드 환상곡'은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해 쓰여졌다. 사라사테에게 헌정된 곡으로 스코틀랜드 민속음악에 기반을 둔 4악장의 곡이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현미 교수가 협연한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은 베토벤의 '운명'에 비견되는 작품이다. 20세기 교향곡 중에서 가장 인기있고 신비로운 곡으로 평가받는다. 유료. 064)728-2745.

제주합창단은 태풍으로 연기됐던 기획연주회 '이 가을, 다시 사랑'을 이달 23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선보인다. 나주시립합창단 김정연 예술감독이 객원지휘에 나선다. 무료. 728-2746.

서귀포관악단은 이달 24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66회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이동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아 제주 소재 창작곡 등을 실어나른다.

연주곡은 제주 홍정호 작곡의 교향시 '삼성혈', '관악의 거장' 프랑코 세자리니의 '교향곡 1번 수호천사', 플루티스트 오신정이 협연하는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 강스텔라(피아노) 강선혜(바이올린) 문숙연(첼로)이 호흡을 맞추는 베토벤의 '피아노·바이올린·첼로를 위한 3중주 협주곡'으로 구성됐다. 무료. 739-739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175>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ᄋᆞ멩이가 ᄀᆞᆫ는다. "누님- '흑룡 ᄉᆞ랑 큰생이 봉황이 오람시난 큰큰ᄒᆞᆫ 바위산을 ᄇᆞ려보게' ᄒᆞ는 놀레 ᄎᆞᆷ말 좋은게. 나신디 선세 ᄒᆞ여주난 고맙수다. 하르바님-그 후제 이왁을 ᄒᆞ여줍서."

하르바지의 말씀. "기여, 흑룡이영 봉황 이왁을 ᄒᆞ여보켜. 경ᄒᆞ연 흑룡이 멩근 놀렐 와랑차랑 불루멍 큰큰ᄒᆞᆫ 바위산을 멩글젠 ᄒᆞ루 ᄒᆞ루 막 멩심 ᄒᆞ멍 족은 바위덜을 모돗저게. 아척 ᄇᆞᆰ아가민 돌을 모듭젠 ᄯᆞᆫ바위덜ᄒᆞ곡 ᄒᆞᆫ디 모다들엇저. 경ᄒᆞ당 낮후제 뒈난 ᄒᆞ쏠쉬멍 중석도 먹어가멍 돌을 모돗저."

*** 제주어 풀이**

*ᄀᆞᆫ는다 : 말한다. *나신디 선세 ᄒᆞ여주난 : 내게 선물 하여주니.
*하르바님(하르바지) : <이름>'할아버님'의 뜻으로 겸손하게 높이어 부르는 말.
*후제(그후제) : <이름> 뒷날의 어느 때. *이왁(이와기, 이약) : <이름>이야기.
*아척(아적, 아칙, 아침, 야적, 야적이, 야척) : <이름>아침.
*ᄇᆞᆰ다 : <그림>빛이 있어 훤하다.
*ᄒᆞᆫ디(ᄀᆞ치, ᄀᆞ찌) : <어찌>함께. 더불어. *ᄒᆞ쏠(ᄒᆞ솔, ᄒᆞ꼼, 야쏠, 짹금) : <어찌>조금.
*중석(고비리, 제꾸름, 젯구름, 첫구릉) : <이름>주로 밤을 샐 때나 일을 할 때 간식으로 제공되는 음식. 곁두리.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문화가 쪽지

'서귀포문학' 제30호 발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회장 김원욱)가 연간지 '서귀포문학' 제3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서귀포문학 세미나에서 발표된 홍용희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제주의 원형 상상과 한류미학의 가능성', 김병택 제주대 명예교수의 '서귀포문학의 서정 전략'을 특집으로 실었다. '작가탐구'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태어난 강영은 시인의 자선 시, 시평 등을 담았다. 시, 시조, 소설 초대작품도 만날 수 있다. '지역문협을 찾아서'는 합천문인협회를 다뤘다.

김서령 소설가 북 콘서트

제주문학의집(운영위원장 이종형)이 김서령 소설가를 초청해 이달 25일 오후 7시 문학의집 북카페에서 북토크콘서트를 연다.

김신숙 시인의 대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김서령 작가의 산문집 '에이, 뭘 사랑까지 하고 그래'를 들고 이야기를 나눈다. 산문집은 사랑과 연애, 결혼과 육아, 엄마와 딸 , 여행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소소한 일상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있다. 문의 070-4115-1038.

문화예술 추진전략 워크숍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달 3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예술공간 이아에서 제주도민 주도 중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사전에 의제별로 회의를 거친 후 공동 의제를 도출하는 '미니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에 앞서 ▷예술가, 예술시민 ▷공간, 사회 ▷삶, 내일 등 3개 분야에 걸쳐 의제별 참가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예술인, 문화인력은 물론 도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64)800-9114.

생활예술 아카데미 운영

예술공간 이아가 생활예술 아카데미 3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어르신 춤으로 나이테(11월 6~11월 27일), 꼬마들의 춤나들이(11월 8~11월 29일), 입주작가 연계 실크스크린(10월 31~11월 28일), 도자와 플라워 디자인을 통한 감각 기르기(10월 28~11월 18일), 피규어 만들기(11월 2~12월 14일), 입주작가 연계 얼렁뚱땅 미술 수리소(11월 1~11월 22일) 등이다. 문의 064)800-9333.

'애월문학' 10호… 애월 해녀들의 삶과 꿈

'문학이 살기 좋은 곳' 애월의 작가들이 애월읍 바닷가 마을에 깃든 해녀들을 찾았다. 애월문학회(회장 김순신)가 '애월문학' 10호 발간을 기념해 꾸민 '애월 해녀들의 삶과 꿈' 특집을 말한다.

이번 특집은 안미정 한국해양대 교수의 '집 삼아 다니는 바다'와 회원들이 쓴 '해녀 탐방기'로 구성됐다. 엄쟁이, 애월리, 하귀1리, 하귀 2리, 가문동, 고내리 해녀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그들을 통해 "척박함 속에서도 숨비소리로 살아온 삶, 점점 오염되어 가는 바다를 지켜야겠다는 굳센 의지"를 읽었다는 애월문학회는 해마다 마을을 달리해 제주 전 지역의 '해녀 삼춘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이번 호에선 회원들의 시, 시조, 수필, 소설, 동화, 제주어 콩트도 볼 수 있다. '일반 작품'으로 수기, 평론 등도 더해졌다. 말미에는 역대 회장들이 보유한 자료 등을 모아 '애월문학 발자취'를 짚었다. 창간호~9호 표지, 애월문학의 발원, 애월문학 10년을 돌아봤다. 진선희기자